

即身成佛의 大道 - 密教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 총지종보

삼밀수행 중자갈고 단시행(檀施行)은 비료같이 물심양면 완전공덕 이로 인해 성취된다.

- 종조 법설집 -

## 제 2 호

등록번호 마-2360 호  
등록일자 1995. 8. 29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우) 135-082

발행인 안중호  
편집인 이종석  
인쇄인 김규석

대표전화 (02)552-1080  
발행인실 (02)562-8823  
편집국 (02)508-8933  
광고신청 (02)552-1081  
구독신청 (02)552-1083  
팩스 (02)552-1082

### 주요 기사

- 1면 · 종령법어
- 2면 · 사설
  - 예산안 확정
  - 종단운영계획
- 3면 · 신년사
- 4면 · 총지종의 어제와 오늘
- 5면 · 밀교개론
- 6면 · 환멸연기의 공덕
- 7면 · 정각사 소개
- 8면 · 이런 불자

### 새해불공안내

○기간: 1. 8(월)~1.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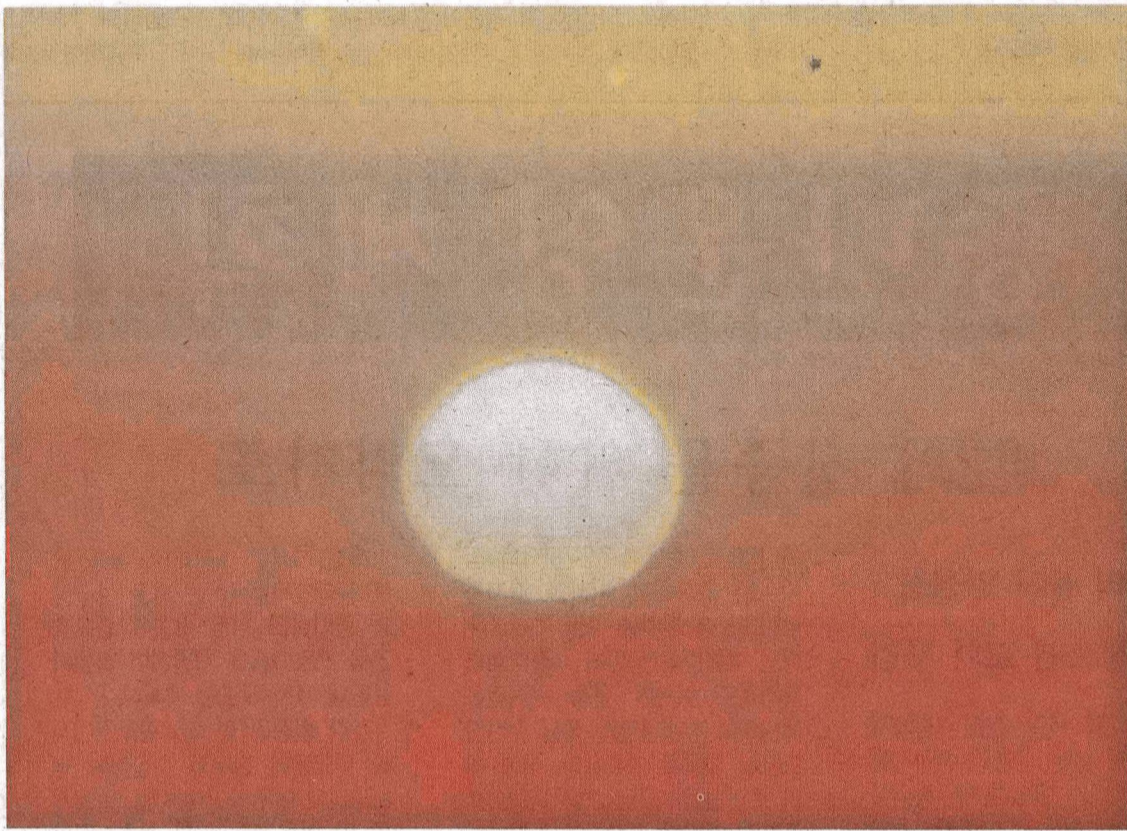
○서원사항

- 총지종교세발전
- 부국강병국태인안
- 조국평화통일
- 일체교도가정제재난
- 일체교도가정소구역의
- 재난불생 산업발전
- 일체교도 오세대 제도
- 사문정밀 국운융창
- 전단건설 원만

# 비로자나불의 광명이 온 누리에

## 어둠의 시대는 가고 밝은 날이 오기를

병자년 새해가 밝았다. 무시무종(無始無終)의 시간 속에서 새해니 뭐든 해니 따지는 것이 우스운 노릇이기는 하지만 인간이 만든 시간의 구분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계기로 삼는다면 그리 나쁘지는 않으리라. 항상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새해 아침의 태양은 더욱 아름다워 보인다. 대일여래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 광명도 저러 하리라. 제암편명(除暗遍明)! 그늘진 곳이 없이 두루 빛을 비춘다는 뜻이다. 법신이불(法身理佛)이신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빛에는 그늘이 없다. 우리 스스로가 그늘을 지을 뿐. 기억하기조차 싫은 올해년의 대형참사들과 어수선한 분위기가 금년에는 다시 되풀이되지 말았으면 한다. 가치관 상실의 격변하는 이 시대에는 우리 불자들의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 혼돈의 급류에 자신을 내맡겨 표류하지 말고 수미산같은 믿음으로 잃어버린 나를 찾자. 너와 내가 남이 아님을 깨닫고 보살도를 실천하여 사바세계를 불국정토로 바꾸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이 함께하시기를.



제암편명(除暗遍明)! 법신이불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도 그러하다

## 추계 강공 개강식 및 종보 창간기념법회

### 불교계 내외인사를 비롯 사부대중 5백여명 참석

제46회 추계 강공 개강식 및 종보 창간 기념법회가 지난 10월 24일 총지사 2층 서원당과 3층 총지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부 법회와 2부 리셉션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행사는 총지종 스승 전원과 송월주 한 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각 종단 대표, 그리고 김대웅 불교텔레비전 대표이사,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서삼목 국회의원 등 불

교계 내외 인사 및 신도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개강사에서 안효강 총리원장은 "강공회는 교상(敎相)과 사상(事相)의 확립을 공고히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이번 총지종보의 창간으로 정보화시대의 교화방편을 수용하고 더불어 여타 불교종단과 함께 불교발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으며, 특

정(禪靜) 종령(宗領)은 "총지종보야말로 가장 진솔한 법신불(法身佛)의 묘음(妙音)을 사바세계 모든 중생들에게 내리는 감로법문(甘露法文)이 될지라"고 법어를 통해 서원했다. 또 이날 부산 정각사와 대전 만보사 합창단의 찬불가 합창과 여러 신도들의 자원봉사는 행사를 더욱 빛나게 했다.

25일부터 28일까지 있었던 추계 강공회에는 "스승의 사명"과 "오상성신관(五相成身觀)"에 대한 특강 종령과 효강 총리원장의 특강이 있었으며, 동국대 교수를 비롯한 외부 강사의 "즉신성불(即身成佛) 사상", "반어심경" 및 "불교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관한 강의와 "밀교의 수행관" 및 "불신(佛身)관"을 주제로 한 법장원 연구원의 발표가 있었다.



(창간 기념 축하연)

### 불자주식공모안내

#### 불교TV 주주불자님께는 이렇게 보답드립니다.

불교TV 주식공모에 동참하시는 불자님들께는 경영성과에 따른 이익배당은 물론, 앞으로 불교TV에서 개최하는 교양대학, 문화강좌, 국내외 성지순례 등 각종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하실 수 있는 특전을 드리며 각종 방송의 성과물들도 영기에 보답해드릴 예정입니다.



# 불교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불사 지금이야말로 불자님들의 성원이 절실합니다

개 국한지 열달도 안된 지금 불교텔레비전은 이미 43만여 가구에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타종교방송들에 비해 훨씬 높은 시청율을 기록하고 있는 등 그 발전과 활약상이 눈부십니다. 풍부한 불교문화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초기의 투자재원만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불교텔레비전이 펼쳐나갈 미래는 끝이 없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초기에는 경영여건이 어렵기 마련입니다만, 불교텔레비전의 경우 케이블TV 가입시청 가구수 100만에 이르는 96년말까지가 고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불자님들의 성원이 절실합니다.

우리 불교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이 원력불사에 많은 분들이 주인공으로 동참하셔서 선근공덕 지으시기를 두손 모아 당부드립니다.

불교텔레비전 대표이사 定岳 泰應 합장

### 불교TV 주식형약 안내

- 청약기간: 1995년 12월 1일~1996년 2월 28일(90일간)
- 청약지료용지교부처: 전국 사찰, 불교단체, 불교텔레비전 본사 및 부산지사
- 청약한도: 1인 20주(10만원) 이상
- 청약요령: 교부받은 지료용지에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신 후, 은행이나 농·수·축협외 99년 지료장부에 납입금과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문의전화: 불교TV본사: (02) 3270-3476~9  
부산지사: (051) 645-5114

### 불교텔레비전

본 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번지(금호전기빌딩)  
전화: (02)3270-3300 팩스: 3270-3498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260(동양빌딩)  
전화: (051) 645-5114 팩스: 631-1772





# 신년사

## 종파와 계층을 초월하여 제도를



김명준 회장

대망의 병자년을 맞이하여 불타의 가르침에 국민안하고 7천만 겨레의 염원인 남북의 평화통일 및 세계평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새해를 맞이하여 총지중의 무궁한 발전과 총지중보 2 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2 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정통불교의 맥을 이어갈 주옥같은 진언과 정확한 인계, 그리고 엄격한 의례와 사중수법을 비롯하여 이로정연(理路整然)한 교상과 사상을 갖추고 즉신성불의 대도를 밝힌 총지중은 불교의 교주인 범신인불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교화를 편지 어언 4만세기가 흘러 갑니다.

## 새질서 창조로 자랑스러운 미래를



박정술 회장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총지중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후원에 감사드리며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올해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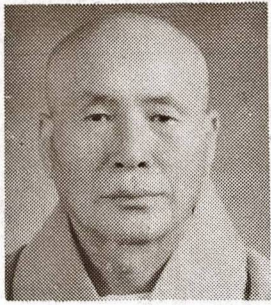
간 총지중은 안으로는 피나는 수행정진과 밖으로는 탐·진·치에 오염되어 가는 중생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불철주야 교화 및 복지사업에 앞장서 오셨으며 특히 불교방송과 불교TV 설립에도 적극 동참하시어 불교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야호로 21세기는 한·중·일이 중심이 된 아시아태평양시대로서 우리 한국불교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인류는 큰 위기에 봉착할 것임을 우리 불교지도자들은 크게 자각하여 새로운 활로를 여는데 헌신을 다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파와 계층을 초월하여 상부 삼조함으로써 삼독에 깊이 취한 무명중생들을 오락약에서 제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복녕평에도 곳곳마다 불음이 메아리쳐 남북 평화 통일이 성취되며, 불력의 가피로서 지구촌 오대양 육대주에 평화의 비둘기가 훨훨 날게 하여 주옵소서!

## 문서포교를 통한 영원한 발전을



김명준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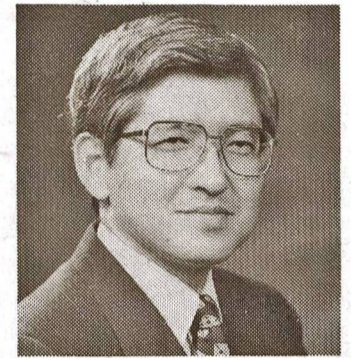
총지중은 한국불교의 대표적 종단으로서 재가불교인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수행과 철저한 계행으로 우리 불교계의 자람이 되고 있습니다. 불교가 이땅에 전래된 이래 불교는 우리 불교의 자람으로 오늘날까지도 그 유구한 전통

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즉신성불의 대도를 열고 부처님의 자비를 온 누리에 펼치고자 이 시대에 새롭게 태어난 총지중이 문서포교를 통하여 한국인연불교의 위상을 고양함과 동시에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수행방법에 대한 독특한 신앙정진생활을 전범홍보하고자 이렇게 출발하게 됨을 진심으로 경하합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힘찬 사자후로 범음홍포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일취월장 영원무궁도록 총지중과 총지중보가 발전번영하기를 다시 한번 경축기원합니다.

나무 마하야나비라미  
나무 사야나사 석가모니불

## 성숙한마음 자세로 새로운 미래를



서상목 회장

회망한 병자년 새해를 맞아 불교 총지중 신도 여러분께 서면으로나마 신년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행복과 기쁨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지난 해에 이루지 못했던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육바라밀 실천으로 불국정도를



정관팔 회장

병자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지난 한해는 말 그대로 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크고 작은 각종 사건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스폭발사고, 철도사고, 해상사고, 백화점 붕괴사고 등등으로 무고한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순식간에 귀중한 목숨을 잃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이며 누구의 탓입니까?

그것뿐인가? 일국의 대통령을 지난 분이 부정부패를 해서 철창에 들어가고 또한 불법적으로 정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증반까지 보건복지부장관 직을 맡아 국정운영에 참여했고 바른정치를 펼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했던 한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 나라 전체가 어수선했으며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떨어졌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한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우리 모두의 과거사를 정리해 보고 이제 신년을 맞아 모두가 좀더 성숙해진 마음 자세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올해는 한해도 강남구민 여러분과 총지중 신도 여러분의 기도에 결코 어긋나지 않는 신선하고 합리적인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며 이를 위한 여러분의 질책과 애정을 당부드립니다. 신년을 맞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을 찬탈한 혐의로 투옥되고 하는 등 우리나라 현정사상 처음있는 국치의 지경을 당하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불교인인 우리는 이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부처님 말씀에서 늘 듣고 배우는 인과법이나, 탐진치 삼독이나 하는 법이 얼마나 틀림없는 진리이며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아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의 모든 사건은 자기가 맡은 일을 무책임하게 한 탓이요. 또 하나는 자기 분수에 맞지않게 탐심을 부린 데서 오는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끝내는 패가망신까지하는 어리석음의 결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필귀정입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좋고 나쁜 모든 일이 우리를 일깨워주는 법문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총지중 모든 불자가 앞장서서 육바라미행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갈망하는 불국정도를 이룩하는데 응징정진합시다. 성도합시다.

## 금강대승의 자부심으로



김명준 회장

이제 또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로 우리 총지중이 4만세기를 맞게 됩니다. 그동안 온갖 역경을 헤치고 오늘의 총지중이 있게하신 여러 스승님들께 감사드리며 선사들의 창조정신이 퇴색하지 않도록

오늘의 성취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여 명실상부한 한국최대의 불교 종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땀 흘려 노력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승단과 보살대중이 더욱 합심노력하고 나만의 해탈이라는 소승적 태도를 버려야 하며 내가 하나라는 보살정신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우리 불교는 모든 법 가운데서 가장 수승한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총지중은 어디에 내어 놓아도 손색없는 불교종단입니다. 항상 최고의 금강대승(金剛大乘)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올해는 오세대 제도를 반드시 실천하도록 합시다. 성도합시다.

## 200년대의 정신적 지주-총지중



김명준 회장

전국의 스승님 여러분! 전국의 신도님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올해를 보내고 희망찬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과 직장에 부처님의 자비광

명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서원합니다.

병자년 새해에는 고통받는 중생의 구도에 본 종교가 그 의미를 맡게 되어 마음 든든합니다.

모든 것이 과학화, 전문화되어가는 요즘을 우리종단에서도 보다 적합한 포교계획을 수립하여 신세대들을 포용하고 신도계층의 노력에 대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승단과 신도회가 더욱 합심 협력하여 우리 총지중이 2000년대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 밀법은 최상의 보물



김명준 회장

육자대명왕인 "옴마니반메훔" 마음만 비우면 모든 소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진언 중에 왕인 "옴마니반메훔". 진흙 속에

깊이 잠들었던 소중한 고귀한 보물, 우리 불교 가족만이 알고 있었던 보물, 이제서야 자기 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중생이 마음에 눈을 뜰 수 있는 광명의 보물, 진실하고 확실한 보물, 근기에 맞추어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보물, 누구에게라도 자부심을 갖고 전할 수 있는 값진 보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밀법입니다. 병자년 새해에도 우리의 이 좋은 법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오세대 제도에 땀 흘려 노력할 것을 서원하겠습니다.

## 잘못을 참회하고 더욱 정진을



김명준 회장

리가 되는 것이나 그것을 범성계에는 일즉다(一即多) 다즉일(多即一)이라고 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과 쌓여진 업보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참회하기 위해 지극한 염승을 하면서도 잊지 않는 부분보다 부족한 부분이 더 많음을 느낀다.

지금 "새해"라는 이름이라 어제의 그것들을 드러내어 세척하고 참회하며 성불의 그 시점까지 멀고 먼 길을 더욱 더 정진하는 길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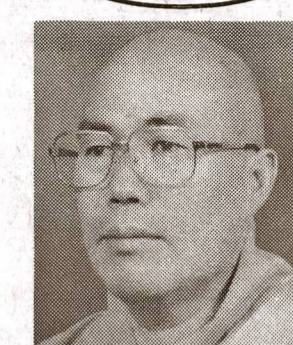
새해가 밝아오니 일체 중생도 평등한 마음, 독없는 마음, 장애되지 않는 마음, 겸손하며 하심하는 마음, 번뇌가 없는 마음, 해치지 않는 마음을 일으켜서 보시에 있어서는 능히 버리며 계행에는 능히 수호하며 인욕으로 능히 받으며 정진에 게으름이 없고 선정에는 적정(寂靜)하며 지혜로써 잘 깨쳐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서로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극락정도를 이루는 길이다.

더불어 부부호순, 부자수순, 친구화합, 사회안정과 남북통일의 모든 염원이 이뤄지기를 부처님께 진심으로 발원합니다.

혹박을 가리지 못하고 어리석어 물음에 빠져서 하루 아침에 명에 발탈당하고 인격은 쇠퇴되어

# 마음을 바로보면 고통도 소멸해

## 특별기고



전남정 회장

이천만 불자형제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올해를 보내고 희망찬 병자년을 맞이하여 믿음을 생활화합시다. 그 어떤 신앙과 경건도 좋습니만 시랑세계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관세음 보살님을 앉으나 서나 일념으로 염승하시면 만사형통 될 것이요, 우리의 모든 고난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본심미묘 육

가 표류하여 멀리 나찰귀의 나라에 떨어지게 되었을 지라도 만일 한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난을 벗어 나게 되니 이러한 인연으로써 대자대비 관세음 이라 합니다.

요즘 불행히도 중생들은 이 마음의 눈이 번뇌 망상에 의해서 많이 흐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본체를 보지 못 합니다. 사물의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사물의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휘뽀뽀 생각을 가지고 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재난이라 하는 것도 알고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재난이라고 하는 죽음도 사실은 죽음이 아닌 진실을 착각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왜 이처럼 착각하는 흐린 마음의 눈을 갖게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만을 가지고 현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이라는 것이 곧 무명요 탐진치

않고 구제 하시는 분이 관세음 보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마음 가운데서 불과 같이 성내는 마음, 물과 같이 탐내는 마음, 바람과 같이 어리석은 마음을 관세음을 생각하여 일념으로 번뇌를 제거 함으로써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해방 시킵니다.

이것이 곧 해탈입니다. 걸림없는 마음의 눈으로 세상 곳곳을 살펴 사바 세계 모든 중생들의 고뇌에 찬 음성을 듣고 또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분이 관세음 보살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위신력은 중생들의 유죄 무죄를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죄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자성이 없는 것으로 단지 마음 따라서 일어난 환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천수경에 "죄무자성중심기, 심악멸시죄역량, 죄망심멸양구공, 시즉명위진참회"라는 참회기도 있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자성이 없고 마음 따라서 일어나는 것, 마음

## 진실한 참회로 본성을 회복해야 해탈은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에 의지해야

자대명왕인연인 "옴마니반메훔"을 전해 주셨습니다.관세음 보살이란 이름은 무슨 뜻이며 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觀世音" 불 觀자에, 인간 세상, 소리 풀자입니다. "觀"이라는 글자는 육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 세레자가 모여서 된 이름이므로 한문 뜻을 풀이하면 관세음 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마음의 귀를 통해서 관하는 보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바세계 모든 중생들이 고뇌에 차 있을때 관세음보살님을 일심으로 부르면 즉시 해탈을 얻게 되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이나 옴마니반메훔을 염승하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염승하면 한량없는 자비방편으로 우리들의 고통을 해결 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가지는 이는 후 큰불에 들어가지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 하며 큰물에 빠졌을지라도 그명호를 부르면 곧 얹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여의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기, 마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기 위하여 큰 바다에 들어 갔을 때 설사 큰 폭풍이 불어서 그 배

를 없애면 죄도 역시 없어진다. 죄와 마음을 다 같이 비워 버리면 이것이 진정한 참회다"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진실한 참회를 하게 되면 바로 자기 자신의 근본성품인 본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성을 회복함으로써 죄의 구속으로부터 해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의 마음이란 바로 죄도 자성도 일체 단상이 본래 텅빈 것임을 깨달아 반야비라미다를 성취하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념으로 관세음을 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로 보살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이고 마음이 같아 진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환영 즉,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본신이며 불국정도 건설에 총지중 주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총지중 중도 여러분! 보배중에 보배인 육자대명왕인연인 "옴마니반메훔"을 많이 많이 염승하시어 마음자리의 번뇌망상을 소멸시키고 모든 소원을 성취하시고 해탈의 길을 가소서.

옴마니반메훔!

## 밀교의 참맛을 누구나 느끼도록



한수연 회장

병자년을 맞이한 나의 감회는 새롭다. 우리나라의 모든 쥐뉘들이 그렇겠지만, 나의 해인 이 96년을

열심히, 그리고 정말 후회없는 교화활동과 더불어 종단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총지중이 점점 발전해가고 대외에 알려지는 이 마당에 우리들 모든 종단 가족은 더욱 더 정진하고 염승하여 더욱 발전된 모습과 밀교종단으로서의 참 불교의 진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교도들을 교화하는 것도 좋지만, 한 분이라도 불교의 참맛을 음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스승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매년 연말인 후회하고 반성해도 우리가 인간이기에 실수

를 반복하지만,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법을 전하면서 내가 선택한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좌절이란 단어를 떠올린 적이 없다.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나의 조그마한 욕심이 있다면 모든 중생들이 불교의 참맛을 알고, 그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면 우리나라의 불교 발전과 더불어 우리종단의 발전도 한걸음 더 빨라지리라 확신한다. 다시한번 이 해를 마무리하면서, 총지중을 포함한 모든 불교인들에게 부처님의 광명이 함께하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 마음 도량 넓히고 진실한 보살로



김명준 회장

다사다난했던 올해를 보내고 지나가고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의 가정마다 희망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서원합니다.

처참하게 물라하는 모습들을 보니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약한 사람도 행복하며 악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선한 사람도 죄를 받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새삼스럽습니다. 불도란 자신이 스스로를 제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제도하지 못하고는 남도 또한 제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총지중도 이제 창종 25년이 됩니다. 승단 교도가 더욱더 화합단결하여 총지중의 발전에 노력할 것을 서원하며 정통 불교로서 생활불교, 실천불교, 즉신성불을 지향하는 우리의 중지를 널리 알립시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도량을 건설하여 고해에 빠진 중생의

보금자리가 되고 공덕처가 되고 해탈처가 되어 세세생생 부처님 광명에 힘입어 마음의 도량을 넓히고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진실의 대보살이 되도록 정진합시다.



총기 25년 새해 특집

# 총지종의 어제와 오늘

### 정통밀교 중흥 위해 총지종 창종



총본산 총지사와 종림 한미유치원 전경

불기 2516년 입자 12월 24일! 정순하고 완전무결한 조직과 체계,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례와 시중수법을 갖춘 정통밀교의 총지종이 한국밀교중흥의 기치를 내걸고 탄생하였다. 개조이신 원장대성사께서는 필생의 대원력을 세워 해방후 한국밀교의 중흥을 위해 잊혀졌던 비법과 경계, 각종 다라니와 수법 등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교상과 사상을 정리하고 밀교특유의 비법과 진언, 결인, 염송 등 각종 의례를 장기간 몸소 수행 체득하여 밀교의 의례와 수법을 확립하고 동년 12월 24일 상봉동에 서울선교부를 개설하여 개종불사 겸 창종식을 봉행하고, 종명을 「불교 총지종」이라 명명하여 만천하에 선포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 한국밀교는 진각종만이 겨우 종단형태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고 그때까지 진각종의 교상과 사상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음을 늘 안타까워 하였던 원장대성사께서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진각종을 떠나신 후 대승장엄보왕경과 존재관음법으로 교화하려는 백수노인의 현몽의 계시를 받고 몸소 진언염송 수행정진을 체득하신 후 정통밀교인 본종을 창종하였다. 그때는 비록 역사는 일천하였지만, 밀교의 정맥수호에 교단의 총력을 다하던 시기”였다고 종령 특정 대종사께서는 초창기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하신다.

### 창종원년 10개 선교부로 출발

창종 원년에는 10개의 선교부에 불과하였으나, 이듬해에는 대전 등 전국 대도시 및 중소도시 등지에 8개의 선교부를 증설하고, 경북 안감선교부 등 5개의 선교부를 신축이전하여 한공불사를 올렸으며 밀법의 마니보를 비장한 명실상부한 밀교종단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특히 창종 6년째가 되던 해에는 종단의 교세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라 서울 강남 지역에 대가람을 건립, 총본산을 이전하였다. 밀교종단으로서 현대불교 생활불교를 표방한 총지종의 지표가 실현되었던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으며 대중불교와 중생구제의 도량으로 포교에 새전기를 마련한 불사였다.

또한 92년 대전 만보사와 대구 개천사 등의 사원신축

불사를 비롯하여 현재 부산 인천 등지에 정각사 지인사의 신축불사가 진행중에 있어 금년내에 회향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사원신축 뿐만 아니라 2세 불자의 포교에도 눈을 돌려 지난 74년에는 본산 총지사 경내에 연건평 3백28평의 종립유치원을 건립하고, 총북 괴산에 입자 70만평을 매입, 종단의 수련원을 건립하여 특수 수행도량을 마련하는 등 자타가 인정하는 한국밀교 대표종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또한 육영사업으로 종립학교 대동학원을 설립하여 동해중학교를 인수하였으며, 지난 93년에는 경기도 성남시에 연건평 2백50평의 복지시설인 기로원을 건립, 현재 운영중에 있다. 그뿐 아니라 교육기관인 중앙교육원과 학술연구기관인 법장원과 밀교연구소를 개설하여 교화와 복지, 교육 및 학술 연구 등 다방면에 걸쳐 발전을 거듭해왔다.

현재 종단은 최고의결기구인 승단총회를 비롯하여 중

약과 발전의 기틀을 더욱 다져나갈 계획이다.

### 재단법인화로 청렴·합리적인 종단운영

그동안의 활동과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복지면에 있어 총북 괴산의 종유림에 건립된 기중수련원에 각종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매년 청소년수련법회를 개최하고 있는 한편, 경기도 성남시에 연건평 2백50평의 기로원을 건립하여 병생을 증생교화에 바친 승직자들의 노후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수도처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74년에 법인인가를 얻어 그 동안 수많은 교회사업에 몰입함으로써 일해왔던 본종의 재단법인 불교총지종 유지재단 산하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양로원 및 고아원 등 수용시설을 마련하는 등 복지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의 수련원을 더욱 발전시켜 70여만명의 종유림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에 있다. 기존 수련원을 청소년

강원인 중앙교육원에서는 종단교양대학설립을 계획하여 이미 개설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1차적으로 승단의 스승님들을 대상으로 금년 초에 개설할 계획이며 점차적으로 일반신도들에게도 확대하여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이다.

또한 늘어나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단에서는 법장원·밀교연구소·종보발행소·교양대학 교수처·통리원 등에 이미 고성능 최신 컴퓨터 및 각종 첨단 기기를 도입하여 종무행정의 전산화를 완료하였고, 각 기구마다 전문인력의 보충과 기기의 추가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종단의 인적 발전을 위해 고급인력 채용과 종비생 양성 등 인재양성 차원의 불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효강 통리원장은 내년의 종단운영방침을 “종단의 제2의 창종기라 여기고 내실을 기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내년도 사업의 포부를 밝혔다. (관천기사 2면) 해를 거듭할수록 바빠지고 있는 종단의 모습들을 보면서 총지종의 앞날은 아침 햇살처럼 환하게 밝아만 보인

## 한국 밀교의 대표종단으로 거듭 발전 정순한 의례와 비법으로 정통밀교 발현



불교 텔레비전 개국 축하연에서 축하하는 효강 통리원장

의회와 각종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종령을 중심으로 통리원 산하에 원의회, 총무부, 재무부, 사회부, 교정부를 두고 있고 이를 구성하고 있는 집행부는 전국 37개 사원을 관장하며 종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무원, 중앙교육원, 법장원 등 감사·교육·전법·역경·학술·연구기능을 갖춘 각 기구들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 본종은 창종 당시부터 재단법인으로 등록, 종단체제가 더욱 확고함을 보여 주고 있다.

창종후 10여년 동안은 교세확장과 조직의 체계화에 심혈을 기울인 시기였다면 그후는 종단의 내실을 다지고 그 기반위에 각종 포교사업에 역점을 둔 시기였다.

금년으로 창종 24주년을 맞게 되는 본 종은 제2의 창종기라 여기고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분야에 새로운 도

수련장 뿐만아니라 자연학습장 및 일반신도의 수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노후를 마음놓고 보낼 수 있는 휴양원과 수도원 양로원을 건립하고 임종시에 그곳에서 장례를 치르고 다비와 재를 지낼 수 있도록 장례 및 제례의 복합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도 가정의 가족상이 되게끔 납골당을 발심수행의 성지로서 신앙과 정신생활의 안식처, 일상생활에 여유를 주는 휴식 공원으로 가꿔 나갈 계획이다.

### 불교텔레비전 설립 적극참여

둘째, 사회문화면에서 본종단은 해를 거듭할수록 불교계 대내외에서 본 종단의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짧은 종단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밀교종단의 대표로서 지난 90년 6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이사종단에 등극한 것을 필두로 그해 9월에는 「불교방송」의 이사에 취임하여 방송포교의 선두주자로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조계종과 함께 불교TV방송국 발기종단으로서 세계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제는 영산포교의 전면에 앞장서고 있다.

셋째, 교육면을 보면 학술기관으로 법장원과 밀교연구소 설립하여 종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종단의 사법(嗣法)과 전법(傳法) 및 불경연구와 역경 출판업무를 담당하여 정통밀교의 교상과 사상확립에 역점을 두었다. 최근에는 젊은 인재들을 등용하여 양과 질에 있어 종단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 이는 그간 창종 원로스승 및 전 승직자들의 불퇴전의 정진에 기피된 결과라 하겠다. 승직자 자질향상과 교화방편의 제고를 위해 전문 교육

다.

### 제2의 창종정신 새로운 도약을

오늘도 “삼계의 중생들을 모두건지고... 금강같이 뭉쳐서 일어난 교단, 즉신성불 대도를 널리 열어서...”로 이어지는 창종기를 함창하는 신도들의 모습에서, 법계에서의 사명을 다하려는 소명과 삼구보리·화화중생의 정신을 읽을 수 있다. 실천만이 성불의 첩경이요, 무학자도 실천하면 성불한다는 “실천불교”, 국기를 진호하는 “호국불교”, 대중속에 뛰어난 가운데 사회정화와 불교의 생화화를 목표로 하는 “밀교의 현대화”를 종단의 3대 지표로 삼고있는 총지종은 명실상부한 밀교종단의 선구자이다. (법정/법장원 연구원)



이외법회에 참석한 교도(부산 경남교구 행사)

**무바스님**  
**금강경 강의**

경문과 함께 마다설법하듯이 쉽게 깨닫게 하는 우리시대 대가백무바스님의 금강경 강의는 번뜩이는 재력과 해박한 불교지식이 어우러져 단순한 경전 강의를 뛰어넘어 우리 종파의 진리에 대한 물음과 그 해답을 주고 있다.

● 신국판 / 288면 / 값 5,500원

**불광 꿈나무 총서**      어린이는 부처님의 꿈나무

|                                              |                                          |                                        |
|----------------------------------------------|------------------------------------------|----------------------------------------|
| 1. 구름위의 언뜻나라<br>이민선 지음 / 상권 스님 그림 / 값 3,000원 | 2. 언뜻들의 모임<br>불광어린이법회 편역 / 값 2,000원      | 3. 부처님이 좋아요<br>금·그림 이정문 / 값 3,000원     |
| 4. 부처님이 최고야<br>금·그림 이정문 / 값 3,000원           | 5. 어린이 전수경<br>진호성 지음 / 이정문 그림 / 값 3,500원 | 6. 어린이 불교학교 지침서<br>성일 스님 지음 / 값 6,000원 |

스님이 만들어준 동시집  
어린이 법회 교재  
온 가족이 함께 보는 불교만화  
어린이가 쉽게 읽는 경전  
진호성 지음 / 이정문 그림 / 값 3,500원

온가족이 함께 보는 불교만화  
금·그림 이정문 / 값 3,000원

어린이 불교학교 지침서  
성일 스님 지음 / 값 6,000원

창조적인 생활인을 위한 교양지

**佛光**

공보처 인정 제3회 우수작품

월간 『佛光』은 창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진리의 빛을 우리의 생활 속에 드러낼 수 있도록 부처님의 법음(法音)을 담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참신하고 유용한 내용으로 진법지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138-190 서울 송파구 석촌동 160-1 / 대표전화 420-3200 / 팩시밀리 420-3400

**불광 바라밀 총서**      불교 교리의 핵심을 쉬운 언어로 전달해주는 ...

|                                       |                                               |                                       |
|---------------------------------------|-----------------------------------------------|---------------------------------------|
| 1.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br>판덕 지음 / 값 4,500원 | 11. 위빠싸나 1<br>김열원 지음 / 값 6,500원               | 20. 교양불교<br>우정상 지음 / 값 4,000원         |
| 2. 삶의 빛을 찾아<br>판덕 지음 / 값 4,500원       | 12. 위빠싸나 2<br>김열원 지음 / 값 7,000원               | 21. 불자예절과 의식<br>김열원 편저 / 값 4,500원     |
| 3. 빛의 목소리<br>판덕 지음 / 값 6,000원         | 13. 산이 다하고 물이 다한 곳에<br>박태하의 43명 지음 / 값 4,500원 | 22. 이 기쁜 만남<br>김재영 지음 / 값 4,000원      |
| 4. 행부의 법칙<br>판덕 지음 / 값 5,500원         | 15. 나무석가모니불<br>반영규 지음 / 값 3,000원              | 23. 나는 빛이요, 불멸이라<br>김재영 지음 / 값 4,500원 |
| 5. 반야심경 강의<br>판덕 지음 / 값 3,000원        | 16. 불교우회백유경<br>동봉 윤길 / 값 3,800원               | 24. 몸바다에서 구시나기까지<br>김재영 지음 / 값 5,000원 |
| 6. 보현행원품 강의<br>판덕 지음 / 값 4,000원       | 17. 부처님의 생애<br>박경호 지음 / 값 5,000원              | 25. 무소의 뿔처럼(상)<br>김재영 지음 / 값 6,500원   |
| 8. 불교교리강좌<br>해주 지음 / 값 4,000원         | 18. 여인성불<br>윤하 용하 편역 / 값 3,600원               | 26. 무소의 뿔처럼(하)<br>김재영 지음 / 값 6,500원   |
| 10. 365일 부처님과 함께<br>김재영 지음 / 값 5,500원 | 19. 직장인의 신앙생활<br>한담 지음 / 값 3,800원             |                                       |

한글·일본문화 日本文化 1996년 1월 1일 발행 28,000원

불기 2540년  
**1996**  
**19달력**

산사와 스님 / 월인천강지별곡

사진·석도일 스님 / 그림·대경 김규현

매년 좋은 달력을 제작에 전국에 계신 많은 불자들에게 365일 기쁨을 드려왔던 저희 월간 『佛光』에서는 96년도 달력 『산사와 스님』과 『월인천강지별곡』을 제작하여 주문을 받고 있으나 필요로 하는 각 사찰이나 단체는 연락바랍니다. 주문하신 달력에는 사찰명이나 단체명, 그리고 법회안내 및 주소 전화번호를 인쇄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달력 판매 이익금은 불광출판부 좋은 책 펴내기과 군부대·교도소 불서보내기 운동에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크기 / 가로 30cm x 세로 60cm      매수 / 13매 (표지 포함)  
주문처 / 월간 불광 『佛光』      특수고급재본      주문부수 / 100부 이상  
300부 이상 주문시에는 달력봉투를 무료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불광문화사업부**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0-1 전화 420-3200 팩시밀리 420-3400

밀교개론

밀교는 언제 생겨난 것인가?

밀교의 기원(1)

밀교는 과연 언제, 어떻게 성립된 것인가? 일반인을 비롯한 불교신자 및 총지중도들의 밀교성립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위해서 안호강 통리원장의 밀교기초교리를 바탕으로 밀교의 기원, 민간신앙을 수용, 석존과 주술, 밀교의례의 정비, 대승불교의 전파와 밀교의 유전형식 등으로 나누어 편집자가 임의로 발췌, 수정해 꾸며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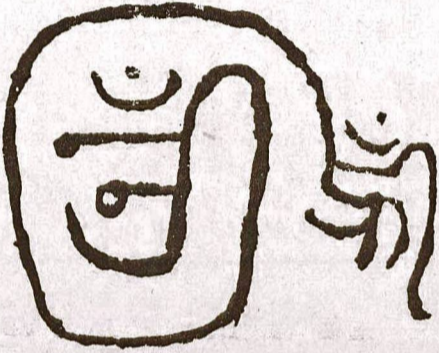
안호강 통리원장

밀교가 언제 성립되었는가에 하는 문제는 밀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밀교를 그대로 신비주의적(神秘主義的)인 종교, 주술적(呪術的), 원시적(原始的)인 종교로 규정짓는다면 세계에 존재하였던 거의 대부분의 원시종교(原始宗教)는 밀교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불교 속의 밀교로서 규정지어 말한다면 불교가 성립된 이후에 밀교가 생겨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혹자는 불교성립 이후에 밀교가 생겨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또 밀교속에는 불교 이전인도 바라문교의 종교의례 또는 민간신앙 등이 많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밀교의 기원은 바라문교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다. 따라서 밀교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밀교의 기원에 대한 문제도 달라지게 된다.

일체의 모든 것을 거의 무차별적으로 끌어넣는다. 그러한 연후에 어떠한 계통(系統)-시스템-으로 조직화하는 형태이며 이것은 또한 동양 사상의 경향과 일치한다. 이는 이질적인 것은 잘라 버리고 순수한 것만 남겨서 그것을 육성해 나가는 서양 사상과는 다른 것이다. 즉 밀교라는 것은 현재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것저것 할 것 없이 포용(包容) 흡수(攝受)하여 그것을 일정한 원리(原理)에 입각(立脚)해서 전체적으로 조직화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바로 밀교의 특색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밀교의 기원(起源)을 살펴보면 그 재료는 여기 저기 굴러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되고 있는 명상(冥想), 유가(瑜伽 yoga, 요가)도 같은 예로 들 수 있다. 인도 문명(印度文明)은 불교성립 이전에 서방(西方)에서 침입한 아리아민족(BC 2,000년경)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다. 이 민족의 성전(聖典)인 "리그베다" 등을 지금도 오래된 '고도음(古都音) 등지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원전 2,000년경에 일어난 인도 아리아 문화 이전에도 인도 원주민의 문화, 즉 지금의 아리아 문화와는 질이 다

추정되는 행자(行者)의 상이 있다. 이 행자의 상이 수목 곁에서 유가를 행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그 시대에는 수목숭배(樹木崇拜)의 풍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며 그 중에 여신상도 발견되는 것을 보면 인더스 문명을 구축한 사람들은 모계제 사회(母系制 社會)를 이루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이 유가행(瑜伽行)이 불교에서 밀교로 옮겨져 내려오고 있으며 또한 여신의 숭배도 밀교에 도입되어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많은 사적(史蹟)과 유적(遺跡)들을 살펴보면 인도 문명 그 자체가 밀교(密敎)의 기원이라 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라문교 또는 힌두교 그대로가 밀교가 되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넓게 잡히는 결과로 되므로 거기까지는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불교 속의 밀교로서 다루어 나가려고 한다. 註: 호마(범어로 homa): 소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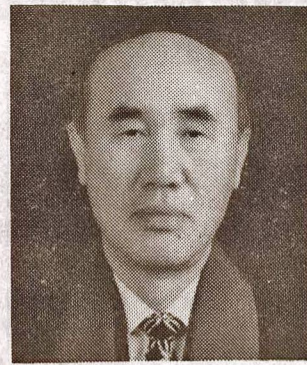


우주의 소리인 진언 몸자의 최초형태

른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것을 인더스 문명이라고 한다. 인더스강의 중류지역에는 "하트 파" 또는 "모헨조다로"와 같은 인더스 문명의 유적도시들이 있다. 기원전 2,000년 이전부터 아리아 민족과 다른 인종이 살고 있었으며 고도(高度)의 옛 문명(文明)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금세기 초 고고학적 발굴(考古學的 發掘)에 의하여 밝혀진 것이다. 이러한 인더스문명의 발굴품 가운데는 유가(瑜伽, 요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樂供養)의 뜻. 護魔, 呼魔라고도 쓴다. 불로 유목(乳木)을 태우고 진리의 불로 번뇌의 나무를 태운다고 생각하여 단상을 마련해 나무를 태운다. 본래 불을 하늘의 입이라 생각하여 불에 공물을 던지면 하늘이 이를 먹고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생각으로 옛날 리그베다 시대부터 인도 바라문 사이에 행해지다 8, 9세기 이후 밀교의 영향을 받아 불교에 보조의식으로 채택되고 중국에 들어와서 점점 종교적 의의를 갖게 됨.

지상설법 수행의 근본은 마음 공부



의강(심밀사 주교, 부산·경남 교구장)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디에서

대중앞에 서슴없이 이야기를 토하는지 모르겠다. 인과응보가 어쩔고 생사윤회가 어떠한지, 나아가서는 불교는 자력신앙이지 결코 타력신앙이 아니라면서 기복불교를 지양하여야 한다는 등 단편만을 보고 자기 식대로의 불교관으로 함부로 말하는가 하면 소리를 높여가며 조삼대대로 내려오는 민족고유의 전통문화, 사상, 종교, 관습 및 토속신앙 등에 대하여 거의 미신시 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지극히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 지금으로부터 천삼백여년전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전 우리 조상들의 생활문화와 사상이 어떠

로 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차원적인 이론이나 논리보다도 먼저 자기 스스로의 마음자리를 조심스럽게 살피는데 있다. 실천과 수행이 따르지 않는 이론과 논리는 결국 한갓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할 것이다. 불법은 인간의 자각으로 인격완성을 추구하는 자력신앙임에 틀림없으며 그 자각을 통하여 궁극의 목적인 해탈과 열반을 이루고자 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 능력에 스스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진언이나 염불을 통하여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첨단 科學萬能 시대인 오늘날에도 우리는 무한능력과 지혜를 갖추신

실천과 수행이 따르지 않는 이론은 구두선에 불과 나약한 인간은 부처님의 가치에 힘입어야 밀교는 정각의 가장 빠른 길

와서 어디로 가는가? 과연 인간의 생명이 영원한가? 이 육체의 생멸과 더불어 하나뿐인 이 소중한 생명도 정말 생멸하는 것인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너나 할 것없이 우리 모두 한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이며 우리 인류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자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왔고, 또한 다가오는 미래에도 끝없는 의문을 품으며 살아갈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일찍이 십사무기(十四無記)로서 대답을 대신 하셨지만 자신이 어떤 형태로 느끼고 깨달았기에 그토록 확신에 찬 소리로 불생불멸이니, 제행무상이니, 열반이니, 해탈이니 하면서

했으며 길흉화복을 어떻게 해결하였을까? 그리고 어떤 토속신앙을 가지고 살았을까? 밀교가 인도 고대의 여러 신앙형태를 정화하여 위대한 철학으로 승화시킨 것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부처님의 위대한 진리를 전법, 전달하기 위하여 수많은 선각자들이 죽어갔고 죽음도 불사하는 피나는 정진과 수행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 땅에 불법도량을 세울 수 있었겠는가. "제악막작 증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법(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法)" 악업을 짓지 말고 모든 착한 선을 만들어 행하여 스스로 그뜻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부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소망과 소원을 발원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모두가 마찬가지이다. 진언의 뜻을 모르더라도, 또한 굳이 경전의 뜻을 모르더라도 밝고 밝은 착한 마음으로 염승하고 독경하면 우리들의 소원도 원만히 이루어지리라고 믿는다. 탐민 마음의 끝에 부처님의 참진리가 가득히 쌓일 것이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마음의 문으로 들어가보니 그곳에 부처님의 위대한 세계가 있고 불생불멸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구경열반의 세계가 곧 반야진공(般若真空)의 세계로 전개된다

경전소개 -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大乘理趣六波羅密多經) -

우리 총지중에서 소의경전으로 하고있는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은 반야계통의 밀교경전으로서 대승불교의 교리와 육바라밀을 중심으로 한 보살도를 매우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뛰어난 경전이다. 이 경은 일찍이 원정종조님과 환당 대승사계서 장종 무렵부터 역경에 종사하시어 국내최초로 완역하신 것으로서 경전의 내용과 구성의 수습함으로 인하여 『대승장엄보왕경(大莊嚴寶王經)』과 함께 우리 중단의 소의경전(所依經典)으로 삼게 된 것이다. 이 경은 모두 10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세기 말에 인도출신의 학승 반야(般若)가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이라 이름한 것은 '대승의 여섯 가지 불도의 이치를 묶은 경'이라

는 뜻이다. 이 경에서는 보살이 닦아야 할 보시(布施, 檀)·정제(淨戒)·안인(安忍)·정진(精進)·정려(靜慮)·반야(般若)바라밀등 6바라밀을 박가법(薄伽梵, 세존)께서 자비보살(慈氏菩薩, 미륵보살)에게 설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경은 10개의 품으로 되어 있는데 앞의 4품에서는 불교신앙의 근본바탕을 이루는 불보·법보·승보등 삼보의 중요성과 그 내용에 대하여 개괄하였으며 진언수지독송(眞言受持讀誦)의 공덕과 발보리심(發菩提心) 및 다섯가지 보리심의 내용을 말씀했다. 이어서 보살도를 실천하기 위하여 불퇴전의 자비심과 의도를 멀리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뒤의 6품에서는 앞에서 말한 육바라밀에 대하여 그 내용과 실천방법 및 공덕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설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은 그 내용이 매우 정밀하고 짜임새가 있어 다른 경전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불교도들에게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것은 교리 이후 밀교가 큰 빛을 발하지 못하고 동불교적으로 흡수되어버린 데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다행히 원정 종조께서는 일찍이 이 경의 가치를 알아보시고 우리 중단의 소의 경전으로 삼게 된 것이니 밀교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필히 이 경을 수지 독송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육바라밀의 실천인 바 보살도의 수행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본다.

이 시대의 참다운 불교결집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은 국내 40여 명의 저명한 학자들이 근본불교의 『결집』 전통을 오늘에 되살려 현대사회의 제문제를 불교적 시각으로 분석, 부처님 본래의 가르침을 생생한 삶의 지침으로 승화시킨 대중불교 『결집』입니다.

- 구성: 제1장 불교란 무엇인가
1. 불교의 본질 2. 불교의 역사와 발달
3. 오늘의 세계와 불교
제2장 불교와 현대사회
1. 가정 2. 현대사회와 교육
3. 환경과 생명 4. 미래의 불가
5. 노동 6. 일상생활
7. 사회윤리 8. 복지
9. 과학 10. 사회와 국가
11. 문화 12. 정보통신
13. 미래사회 14. 타종교에 대하여
제3장 불자의 수행
1. 무엇을 믿을 것인가? (佛寶)
2. 어떻게 닦을 것인가? (法寶)
3. 불자의 자세 (僧寶)

• 사양: 4x6배판, 606p, 양장제본 • 발행: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02)719-2606
• 정가: 20,000원 • 보급: 도서출판 대원사 (02)757-6717

감사드립니다.

총지중보 창간 법회에 축하와 격려를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 송일주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장 전운덕
대한불교 진각종 총리원장 김락해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이홍파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김광태
대한불교 보문종 총무원장 정해일
대한불교 원웅종 총무원장 배일공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정우남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설대문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전남정
대한불교 진언종 부원장 송밀인
한국대승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김법우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석마일
재단법인 불교방송 이사장 박종하
불교텔레비전 대표이사 김태웅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서돈각
대통령 영부인 손명순
문화체육부 공보부 실장 정덕용
신한국당 대표위원 김윤환
신한국당 사무총장 강삼재
국회 정각회 회장 권익현
국회의원 광정출
국회의원 서상목
국회의원 주양자
외 내빈 여러분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안 호 강 합장

# 환멸연기(還滅緣起)의 공덕을 찾아



김국희(가운데) 원장. 내과 전문의

이제 민중이 지난지 오래, 본격적인 추위가 다가오고있다. 새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결실을 보고 그 결실이 끝난 다음 모든 것은 또 그것들이 왔던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환지본처(還地本處) 회귀(廻歸)의 세계는 바로 윤회전생(輪廻轉生)의 세계이다. 적막(寂滅)과 침잠과 관조(觀照)의 세계가 이즈음일 것이다.

평구는 나염, 정처 없이 휘날리는 그들이지만 그들은 새봄을 기억하는 모든 생명(生靈)들의 피와 살이 될 것이다. 어둠과 고요와 차가움이 교차되는 스산한 계절, 동(冬)정군은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러한 작용은 또다른 풍요와 환락과 안정(安養)의 삶을 약속하는 긴긴 겨울의 잠을 위할 일 것이다.

선연(善緣)의 환멸연기(還滅緣起)는 부처님의 공덕(功德)의 세계요, 중도(中道)의 실천(實踐)의 세계이며 깨우침의 세계요, 빛의 광명(光明)인 불광(佛光)의 세계이다.

이를 일러 불국정토(佛國淨土)라 하지 않았던가. 오락악세(五濁惡世)의 무명(無明)의 한 가운데 서있는 중생(衆生)중의 중생인 인간(人間, manusa)은 응중하고, 지출하고, 비겁하고,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삼독심(三毒心)에 물들어 스스로의 병인(病因)을 알기를 거절한다. 자기가 아는 그 좁은 구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그 구멍에서 허우적거리며 온갖 냄새와 아우성과 매달림과

살상과 파괴와 저주와 협박과 외로움에 휩싸여 갈등과 고뇌의 끝을 알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이러한 세계는 유전연기(流轉緣起)의 끝없는 나라의 지옥이다. 자연신(自然神)의 세계는 천지(天地)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며 생멸(生滅)의 순환을 유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인간(人神)의 세계는 조상신(祖上

神)의 수호신과 악령(惡靈)의 이수리(阿修羅)가 뒤엉켜 복잡다단 한 중생계의 원망과 원혼과 질곡의 현상계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는 천지신명(天地神明)으로 일컬어지는 온갖 자연신에 대한 축원과 바램을 음력 10월 상달에 바친다.

옛조상들이 계속해 내려온 천신 제사이다. 조상의 수호령을 받드는 제사와 제의는 각기 후손된 당연의 일이며, 무주고혼을 위한 오방내외인위제신인언(나무 사만다 못다남 음 도로 도로 지미 사바하)는 악연(惡緣)을 방비하는 진언(眞言)이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 외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 업식(業識)의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빛과 그림자와 같이 언제나 동반하고 있다. 애써 실천하고 정진(精進)함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과다한 물량사회의 끝은 정신세계의 끝이요 파괴며 탁류(濁流)의 하천이다. 이 하천은 독극물의 세계요, 삼독(三毒) 미망(迷妄)의 구렁덩이다. 살생하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이간, 아첨, 저주하는 끊임없는 원망과 증오의 세계에서 원망은 원망으로 증오는 증오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있다. 이 증오와 원망의 끝을 보는 것을 해탈(解脫)이라 부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모든 중생성의 암흑에서 벗어나 공덕과 환희와 축복과 희망의 세계를 극락(極樂)이라 지칭하시지 않았던가. 살고 죽음이 아니라 생(生)하고 멸(滅)하는 세계의 영원한 윤회(輪廻)는 그 윤회를 알지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계속 반복 살생(三生) 삼생(三生) 수억 겁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다는 재행무상(諸行無常)의 교훈은 적막강산의 계절, 한파의 산천(山川)에서 더욱더 절감케 한다. 그러나 계속 다람쥐는 산야를 부지런히 오르내릴 것이고 추위를 피한 만생(萬生)은 두터운 겨우내 침묵의 단잠을 통해 새봄을 대비할 것이다.

살아 숨쉬는 것의 의미는 이기적인 자기애욕만의 세계는 있을 수 없다는 것과 더욱 정진(精進)과 환멸(還滅)의 연기를 통한 공덕심(功德心)의 발로(發路)가 유전(流轉)의 연기를 막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지름길이 된다는 데 있다. 끝없는 동족살상의 참회(懺悔)기과와 증오의 해탈을 통해 「아! 축복(祝福)받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 되었으면!」한 해를 넘기면서 축원(祝願)해본다.(2539년 11월)

## 생각하는 열매

# 선행의 길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항상 절을 하는 수행자가 있었다. 이 수행자는 만나는 사람이 부자이건 더러운 옷을 입은 거지이건, 주름살 많은 할머니건 말쑥부러기 소년이건 상관없이 언제나 공손하게 절을 하고는 "저는 당신을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앞으로 부처가 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을 했다.

수행자라면 불경을 읽고 외우면서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이 보통이고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모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이 수행자는 만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경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수행자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했다. 어떤 사람은 수행자를

만나면 먼저 절을 하고 흉내를 내며 장난치기도 했다. 또 어떤 사람은 "네가 뭐데 건방지게 부처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야. 누굴 놀리려는 거야? 제가 부처라도 되는 것처럼 함부로 떠들고 다니냐. 예이, 못된 놈"하면서 매를 때리기도 했다. 수행자는 비웃음과 놀림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 수행자는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욕을 먹고, 매를 맞으면서도 변함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절을 하고 똑같은 말을 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다. 그 동안 수행자는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저는 당신을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앞으로 부처가 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을 하며 공손히 절을 했다. 사람들은 점점 이 수행자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다. 처음엔 미친 수행자라고 놀리거나 욕을 하고 지나쳐버렸지만 더무니없는 말을 심편 동안 듣다 보니 그저 미쳤다고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수행자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 여럿이 모여 발로 차기도 했다. 수행자의 몸은 갈수록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때로는 걸지도 못할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수행자는 그만 돌 생각도 않고 도망을 치면서까지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절을 했다.

또 그렇게 세월이 흐르자 어떤 사람들이 지쳐버려서 아무도 수행

자가 하는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 후에도 수행자는 늘 만나는 사람에게 절을 하고 같은 말을 했다. 그 말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 온 사람들은 수행자의 말에 익숙해져 예레 듣는 얘기러니 생각하게 되었고 때로 그 말을 인용해서 누굴 빗대어 말하거나 놀릴 때 쓰기도 했다. 그러자 차츰 많은 사람들이 문득문득 그 말을 마음 속에 떠올리게 되었고 가끔씩 꿈 속에서 새겨 보기도 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며 반성을 하게 되었고 때로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 때는 부처님을 그리며 깨끗하고 바른 마음으로 밝게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하게 되었고 그보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며 살게 되었다. 따라서 이웃간의 싸움도 사라지고 거짓말도 사라졌다. 또 사람들이 다시는 함부로 남을 놀리고 욕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짐승으로 이 수행자를 존경하게 되었다. (법화경 상불경보살품)



김혜경(포항 수인사 교무)

우리 절에는 널리 알리고 싶은 보살님이 참 많다. 어릴 때부터 절에 다녔기 때문에 보살님들이 어떤 분인지 조금 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남을 위해 일하시는 보살님도 계시고 새벽에 일찍 절에 오셔서 정소를 하시는 보살님도 계시다. 참다운 보살행이

# 한마디 말의 지극한 뜻

## 수인사의 실천하는 보살님들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 절 보살님들은 참다운 보살행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 훌륭하신 많은 보살님들 가운데 회장보살님을 나는 제일 좋아한다. 연세가 많으셔서 자광이를 짊고 다니시지만 날마다 절에 나오신다. 얼마나 열심히 염송하시는지 하루라도 절에 안오시면 무슨 큰 일이 생기지 않나 싶어 모두들 걱정할 정도다. 보살님이 일찍 절에 오셔서 정소를 하시는 보살님도 계시다. 참다운 보살행이

회장보살님을 가장 좋아하는 까닭은 힘들 때 주신 말씀 한마디 때문이다. 중무원으로 들어와 얼마 안되었을 때, 중무원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도 몰라 제 꼴에 지치고 힘들어 할 때다. 한 날은 염송하고 서원당에서 내려 오시던 보살님과 계단에서 마주쳤다. 보살님을 비껴 서 있는데 나를 보시더니 빙그레 웃으셨다. 염문을 몰라 얼떨떨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기특하다. 열심히 염송해라. 일찍이 법 알아서 내가 고맙다."

이주 짧게 말씀하시고 내려가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나는 참 부끄러웠다. 가슴이 쿵쿵거리고 속마음 들린 것 같아 황망했다. 그러나 곧 마음 속에서는 기쁨과 함께 중무원으로 들어 온 내가 이 법을 만나 수행한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도 힘들고 지칠 때면 이 말씀 생각하며 마음을 다진다. 그 말씀 속에 담긴 보살님 뜻도 함께 새기면서, 우리 회장보살님과 같은 보살님이 많이 계시는 한 총지중은 날로 달로 발전을 할 것이다.

## 견장상식



김국희(가운데) 원장. 내과 전문의

나 겨울철에는 내과 외래환자의 1/3을 차지한다. 콧물, 인후통, 두통, 전신의 동통을 일으키는 감기의 원인은 바이러스이다. 감기 바이러스는 백 수십 가지나 되며 한 가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면역을 얻었다해도 곧 비슷한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증상이 오래가지도 한다. 또한 감기 바이러스는 자체가 다양한 변이를 일으키기도 한다. 독감 예방주사도 독감에 대해서만 예방효과를 가진다.

현재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으나 감기에 대한 특효약은 없다. 그러나 독감 이외의 감기는 보통 합병증 없이 자연 치유된다. 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대증요법이 필요하며 2주일 이상 지속되는 감

기는 합병증의 유무나 다른 질병의 가능성에 대한 진찰이 필요하다.

감기는 수면 부족, 과로 등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신체가 급격한 기온변화에 노출될 때 쉽게 걸리게 된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감기 바이러스가 있다. 다만 자신이 건 강해서 걸리지 않을 따름이다. 따라서 감기의 예방법으로는 몸을 따뜻이 하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며, 외출 후 양치질, 손씻기 등이 가장 중요하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규칙적인 운동과 알맞은 영양 섭취가 가장 좋은 보약이며 감기를 비롯한 모든 질병의 예방책이라 할 수 있다.

## 불교상식 생활속의 불교용어

불교는 1천여년 동안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서 우리의 일상 생활에 혼합되어 왔다. 그 중의 하나가 언어인데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실은 불교에서 나온 용어가 대단히 많다. 몇가지만 예를 들자면 우선 「각오(覺悟)」라는 말이 있다. '새해를 맞아 더욱 정진할 것을 각오한다'든지 '각오는 단단히 되었느냐?'든지 하는 '각오'라는 말이 실은 어떤 결심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는 깨닫는다는 뜻이 더 강한 말이었다. 『능이발다라보경 제2』에 보면 "각오란 공무생무이(空無生無二)로서 자성(自性)의 상을 떠나는 것"이라 한 것이나 『화엄경 제7

현수보살품』에 "광명을 놓는 것을 견불(見佛)이라 한다. 그 빛은 명종자(命終者)를 각오(覺悟)케 하느니라"등 하는 것이 그것이다. 생각, 견해라는 뜻으로 쓰이는 「관념(觀念)」도 그 중의 하나인데 원래의 관념은 불교에서 쓰인 말로 일체진리나 우주의 실상을 관상(觀想)하고 부처를 생각하는 것(念佛)을 줄여서 관념이라했던 것이다. 대중(大乘)이라는 말도 『지도론(智度論)』에 "대중이란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현성(賢聖)을 일컫는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부처 이외의 도를 닦는 모든 사람들로서 자성(自性)의 상을 떠나는 것"이라 한 것이나 『화엄경 제7

여 사부대중이라 했다. 이 말도 지금은 그저 사람의 무리를 지칭하는 말로 격하되어버렸다.

「기도(祈禱)」라는 말도 흔히 기독교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은 불교 용어를 그들이 전용해 쓴 것이다. 기도는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빌어서 불·보살의 도움을 바란다는 뜻이다. 불교의 기도는 절실하고 지극한 원(願)은 반드시 이루어 진다는 신념으로 불보살의 힘만 비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는 바의 성취를 위해 스스로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실천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외도의 기도와 다른 점이다. 같은 말들이라도 불교의 용어는 이렇게 숭고한 뜻을 지녔다.

## 한권의 책

밀교학 입문  
밀교의 근원과 그와 관련한 근래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밀교학 입문(B.뱃따찌리아 지음, 장의 옮김)이 출간되었다. 인도교 탄트라와 불교 탄트라를 비교 분석해 놓은 밀교학 입문서로 밀교의 역사적 생성과정을 인도 고대문화와 결부시켜 언급하고 있으며 인도교와의 상호연관성에 관하여 세밀히 분석해 놓았다. 특히 원저작 이후 30여 년의 연구결과에 따른 최근 학계의 다양한 학설을 함께 실어 놓아서 20세기 이후 밀교학 연구의 진척과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했다.

# 謹賀新年

희망의 병자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의 후의에 감사드리며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성 건축사 사무소 소장 박수현 拜上



40년 전통의 보성 건축사 사무소

주소 : 의정부시 의정부 2동 523-3  
전화 : (0351)875-9710~2 FAX:(0351)875-9713

# 謹賀新年

새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차밍 퍼니쳐 대표 이영열 拜上

## 불자 기업 차밍 퍼니쳐

◎ 생활 가구 주문·제작 ◎

- 장식장
- 옷 장
- 업소 및 가정용 썬크대
- 사무용 가구 일체
- 기타 가구

\* 전국 출장 상담 가능

본사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27-1  
전화 : (02)457-9853 휴대폰:011-301-0080 호출:015-934-0080



총지도량 순례

# 부산 정각사(正覺寺)

## 금강같은 신심으로 뭉친 총지종의 중심도량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도시 부산, 사백만이 훨씬 넘는 인구에 물질문명의 화려함과 외국문물의 최첨단이 가득한 곳 부산, 거칠고 직설적인 항구도시민의 성품, 그 속에서 심묘한 정신세계를 이끌어 내는 밀교, 그 밀교중흥의 디딤돌로 선 정각사, 그 많은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 어떻게 지금의 정각사가 있고 미래의 정각사는 어떤 모습으로 서있을까. 우리는 지금 과거와 현재의 정각사를 통해서 미래의 정각사를 그려 보고자 한다. (박현수 기자)

밀교중흥에 여념이 없다. 그래서 흔히 "정각사는 총지종의 승보"이며 "인재 배출의 요람"이라고 말해진다.

선)의 어린이 회원들에게 부처님 흔이 "정각사는 총지종의 승보"이며 "인재 배출의 요람"이라고 말해진다.

평 연면적 5백55평의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수려한 외향에 편리한 현대식 내부시설을 갖추고 지하는 주차장과 4백여명이 동시에 공양할 수 있는 현대식 공양처, 그리고 지상에는 유치원과 강당, 3, 4층은 승직자 및 중무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금년 11월 완공을 위해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본당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6백여평으로 현대 사원양식의 표본이라고 할 정도로 옛스러움과 현대적인 건축미를 적절하게 조화시킨 외형과 밀교적인 분위기가 짙게 배어 나오는 3층 4층 서원당, 어린 불자들이 여러 행사에 응성공양으로서 정각사의 교화활동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1977년 10월에 지어졌던 정각사는 고전적인 멋과 현대적인 조형미가 적절하게 어우러진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이었으나 물려드는 교도들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증축을 위하여 철거되었던 때 문에 아쉽게도 지금은 2층을 볼 수가 없다. 현재는 지난 4월 완

### 정각사의 연혁...

#### 총지종의 탄생과 함께 출발

1972년 12월 24일 서울 상봉동의 (서울 선교부)에서 총지종 개종불사경 창종식이 봉행된다. 사흘 후 1972년 12월 27일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위치한 정각원 스승의 자택을 보시받아 (부산선교부)를 개설함으로 항구도시 부산에 총지종의 씨앗을 마침내 밀교중흥의 큰 뜻을 안고 뿌리를 내린다. 그후 1975년 10월 29일 (부산선교부)는 (총지서원당)으로 개명되고 수행

으며 총지종의 역사가 곧 정각사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렇게 시작된 정각사는 부산경남의 밀교중흥과 교화발전의 교두보로써 조금의 교만도 없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을 소리없이 비추기 시작했던 것이다.

초대주교 정각원 대전수를 시작으로 청암, 하정, 시각화, 범공, 그리고 6대 주교로 죽비를 잡고 있는 지금의 정정심 주교에 이르는

### 정각사의 교화 활동

#### 열성적인 신심은 전국 최고 각종 불사에 빠짐없이 참여

정각사의 자랑중에서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교도들의 신심이다. 바쁜 일상 중에서도 빠짐없이 서원당에 나와 불공 정진하는 모습들을 보면 숙연하기까지 하다. 자성불공, 월초불공, 새해불공, 진호 국가불사, 영식천도불공, 내허물 고치기불공 등 즉신성불과 극락정토의 완성을 향한 끝없는 구도의 열정이 언제나 도량을 가득 채우고 있다. 우리 종단 뿐만 아니라 현교와 밀교를 막론하고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는 교도들이 있는 도량은 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새벽이나 밤중을 막론하고 드넓은 도량을 메우고 있는 밀행자들을 보면 부산이 불교세가 강한 도시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열성적인 신심에는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정각사에는 5천여명의 회원이 가진 신정회(회장: 서춘선)가 환경보호 운동, 사회복지시설지원, 각종불사지원등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은 자성학교(지도교사: 차차

사: 현 덕화사 주교)로부터 훌륭한 청소년이 되기위한 가르침을 듣고 있으며 전국규모의 합창대회에서 서원당에 나와 불공 정진하는 모습들을 보면 숙연하기까지 하다. 자성불공, 월초불공, 새해불공, 진호 국가불사, 영식천도불공, 내허물 고치기불공 등 즉신성불과 극락정토의 완성을 향한 끝없는 구도의 열정이 언제나 도량을 가득 채우고 있다. 우리 종단 뿐만 아니라 현교와 밀교를 막론하고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는 교도들이 있는 도량은 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새벽이나 밤중을 막론하고 드넓은 도량을 메우고 있는 밀행자들을 보면 부산이 불교세가 강한 도시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열성적인 신심에는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공된 부속전당으로 본존을 옮기고 이 부속전당을 본당 건물에 완공될 때까지 임시로 서원당으로 쓰고 있다. 부속전당은 대지 4백95

### 정각사의 밝은미래

#### 승단교도의 화합단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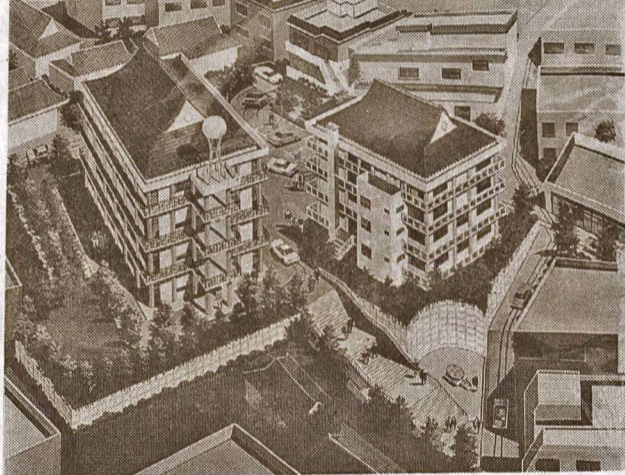
환으로 먼저 종립 유치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의 정각사 신정단체 외 학생회, 청년회, 자자회 등이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과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로이 체제를 갖추어 출범하게 되며 이를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중이다. 금년 후반기에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리라 생각되며, 초대주교 정각원 스승 추모 사업도 97년 스승의 열반일인 12월 28일 회향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정각사의 미래에 희망과 탄탄대로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이며 현실적으로는 많은 난관과 풀어야 할 과제가 있을 것이다. 원만한 성취를 위하여서는 오직 끊임없는 정진과 수행, 그리고 승단과 교도의 화합단결로 모든 장애를 헤쳐나갈 때 정각사는 이 땅의 밀교중흥의 중추적 위치에 서서 그 역할을 수행함에 조금도 뒤지지 않고 우리 총지종의 중심도량으로서 우뚝 설 것이다.

### 정각사의 개축 및 신축

#### 금년말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여

#### 정각사 본당신축공사 조감도



정각사 본당신축 조감도

동안 정각사는 수많은 승직자와 종단의 인재를 배출하였다. 개사한 지 20여년이 못되는 짧은 시간에 30여명의 승직자를 배출했다는 것은 수행력과 교화력, 부처님의 가 지력이 정각사 내부에 얼마나 충

### 정각사는 총지종의 승보

#### 영남의 중심도량으로

게 된다. 이는 서울의 본산 (총지사)보다 3년이나 먼저 신축된 것이다. 이와같이 정각사의 시작은 총지종의 개창과 더불어 시작되었

만 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 그들은 지금도 전국 각 사원에서, 혹은 본산의 집행부에서 끊임없는 수행과 정진을 통하여 증생교화와

## 정각원 대전수



정각사의 역사에서 정각원(正覺院) 대전수를 빼놓을 수는 없다. 부산 선교부의 개설에서 지금의 정각사가 있게 한 탁월한 법력의 스승이다.

1929년 정각원 대전수는 경남 밀양군 무안에서 출생, 그의 속명은 석해선, 처녀때부터 불교, 특히 밀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유천 선교부의 주교 무애정 스승의 지도를 받고 있다가 72년 총지종 초대주교 원정대종사로부터 수계 득도하여 본격적으로 밀교의 중흥이라는 사명을 등에 지고 그 첫발을 부산 선교부에서 내디디었다. 그후 정각사 창건 초대 주교로서 오늘의 정각사를 있게하는 주춧돌이 되었고 종단발전과 부산불교연합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상대자의 저 허물이 곧 내 허물의 그림자"라고 가르치던 생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정각사의 교도들은 지금도 온화한 인품과 가슴에 깊이 와닿는 스승님 특유의 설법을 잊지 못하고 있다.

#### (정각원 대전수 약력)

- 77년 정각사 창건 초대 주교 임명.
- 78년 대전수 풍수.
- 80년 본종 중앙종의회 부회장, 집행부 교정부장.
- 82년 부산 불교연합회 부회장.
- 83년 12월 28일 세수 55세로 세연을 다해 정각사에서 입적.

### 정정심 전수... 정각사 6대 주교



녕에서 출생. 1980년 북해 서원당(현 제석사) 주교로 임명. 83년 부산 성화사 주교, 94년 12월 정각사 주교로 임명.

자그마한 체구에 대쪽같은 성품으로 심신을 아끼지 않고 교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굳건한 불심과 깊은 수행력은 정각사의 미래를 한층 더 밝게 하고있다.



전국합창 경연대회에 참가한 정각사 합창단



불기 2540년

# 성도절 기념 대법회를 부다가야에서..

## 불자 여러분의 요청에 의하여 '94, '95년에 이어 '96년에도 기획한 성도절 기념 특별상품

'94년 1월 2차에 걸쳐 성공적인 성도절 대법회 참가행사를 불교방송(BBS)과 공동주관한 한진관광이 첫 행사에서 얻은 큰 호응과 불자 여러분의 요청에 힘입어 '96년 1월 성도절 대법회에 참가하실 기회를 또다시 마련했습니다.

"신심으로 성지를 순례하면 천상계에 환생하리라"  
— 부처님 말씀 중에서 —

서울 ↔ 밀리 직행(2회)  
대한항공 특별 전세기 운항



서울시 중구 불광동 132-4  
예약문의 726-5763~4 5771, 73  
서울: (02) 726-5750 대전: (042) 252-2034  
부산: (051) 463-2115 대구: (053) 254-3001  
경주: (0561) 745-3070 광주: (062) 228-0041  
제주: (064) 42-7217

후원: BBS 불교방송 인도관광성 대한항공

일반여행법 등록 제 8호

●1차: '96. 1. 24~2, 3 (10박 11일)

●2차: '96. 2. 2~2, 12 (10박 11일)

#### 불교 성지순례 11일

₩ 1,420,000

| 일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 경유지 | 밀리, 알라야바드(1) - 바라나시(1) - 부다가야(2) - 라즈가르, 니라다, 피트나(1) - 바이살리, 쿠시나गर(1) - 룸비니, 발람프러(1) - 렉나우, 아그라(1) - 델리(1) - 가네시 |   |   |   |   |   |   |   |   |    |    |
| 식사  | 조식 8회 / 중식 8회 / 석식 8회 / 개세사 3회                                                                                   |   |   |   |   |   |   |   |   |    |    |
| 호텔  | 11월 21일 기준 (단, 부다가야, 쿠시나गर, 발람프러 지역 4인 1실)                                                                       |   |   |   |   |   |   |   |   |    |    |

\*상기요금에서 인도, 네팔 비자요금 ₩31,000은 불포함입니다.  
\*가까운 여행사에 문의하셔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신청금 ₩100,000 한일은행 009-03-011006 (주)한진관광, \*정부인가 조건임.

### 만다라(曼荼羅:Manda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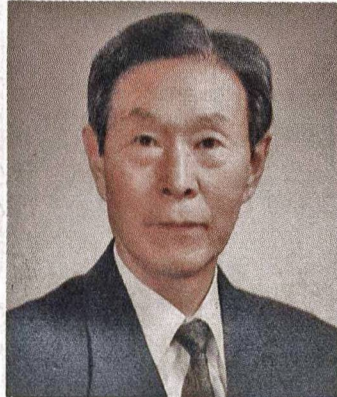


밀교는 고도로 발달한 상징주의 철학이면서 신비주의의 극치를 이룬다. 그것이 그림으로 표현된 것이 만다라이다. 만다라가 없는 밀교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중생구제와 즉신성불의 원리가 이 안에 다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태장계와 금강계로 대표되는 양부 만다라에는 개체와 전체, 분석과 통일, 다양함과 단일성 등 전 우주의 움직이는 모습이 여기에 상징화되어 있다. 다양함속에서도 질서를 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만다라가 지니는 상징성에 대하여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위 사진은 금강계 만다라이다. 태장계 만다라가 여성적 원리에 의한 이(理)의 세계를 상징한 것이라면 금강계 만다라는 남성적 원리에 의한 지(智)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다. 금강계 만다라는 감강정경(金剛頂經)을 소의 경전으로 한 만다라인데 태장계가 중관(中觀)·반야(般若) 계통의 존재론에 기인 하는데 반해 금강계는 유가행유식파(瑜伽行唯識派)의 인식론에 근거하고 있다.

# 찬불가와 함께한 인생

## 이런불자



최영철씨

### 총지종 찬불가도 작사, 작곡

불교에서 '찬불'은 경건한 신앙심의 표현이기에 찬불가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높이 찬탄하고 귀의하는 노래라고 말한다. 따라서 부처님을 향한 노래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한 불심이자 불공이 아닐 수 없다.

### 불교음악 대중화기여

대전 만보사의 합창단을 지도하고 있는 최영철 선생이 바로 그런 깊은 불심으로 찬불가 작곡과 더불어 많은 합창단을 지도하며 찬



만보사 합창단

불가 보급에 힘쓰는 불자이다. 대전의 보문 중·고등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재직 중이던 선생은 우연한 계기로 「삼귀의」, 「사홍서원」이란 두 곡을 작곡하게 됨으로써 찬불가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어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정성을 다해 찬불가 만들기 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자작 곡만도 3백여 곡이 넘는다. 특히 이 두 곡은 불교 행사에 빠지지 않고 불려져 이제 불지라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한 채 이제 겨우 시작되는 단계임을 깨닫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많은 합창단을 이끌고 직접 피아노를 치며 찬불가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네 차례의 대대적인 불교음악제를 펼치는 등 찬불가 보급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 만보사와 특별한 인연

올해로 8년째 대전의 총지종 만보사 합창단의 지도를 맡고 있는 선생은 찬불가 「있어서는 안되리라」의 작·편곡을 비롯해 「우리 총지종」, 「믿음과 즐거움」 등 총지종을 위한 찬불가 작곡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선생은 또 만보사

총지화 전수 자녀들의 은사이기도 해 총지화 전수의 합창단을 위한 발원과 환경적인 결연으로 총지종과는 18여 년의 인연을 맺고 있다.

대통령상 목련장의 수상 및 각종 문화상을 수상한 선생은 현재 충남대학교 관현악단과 함음실내악단을 지휘하고 있으며 총지종의 만보사 외에 조계종의 심광사, 연화사, 부여 보리수합창단과 논산 적림사, 보현회관의 보현, 반설, 계룡대 호국사합창단 등을 이끌고 있다.

합창단을 지도하며 아쉬운 점에 대해 선생은 "대부분 전문가가 아니고 중년층이어서 단원들의 음악적 이해와 감각, 흥미가 부족한 점이 있어 지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심이 있고, 노래에 담긴 뜻을 바르게 새기면서 부르고, 관심을 가지고 찬불가를 공부하면서 생활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발전을 하리라 기대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신의 작품이 연주되고 불려질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선생은 중단을 초월하여 수준 높은 불교음악 발전에 불자들이 함께 하려 한다면 여가시간에도 불교음악을 연구하고 교재를 펴내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양수 기자)



모델로 나선 의강정사와 수행원 전수

### 불교 의상 전시회 부산에서 열려

제1회 한국 불교 의상 전시회가 지난 12월 14일 부산 KBS 홀에서 부산불교텔레비전(사장 우관수) 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부 법회와 2부 의상발표회 및 3부 불자 연예인들의 축하공연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기획된 행사로서 우관수 사장은 대회사로 통해 불자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사회와 유리된 은둔적, 소수적 신행을 탈피하여 역사의 주인이 되는 불교, 시대에 맞게 변모해 가는 불교의 진면목을 폭 넓게 알리고자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발표회에는 각종 승복 및 법의·신도복·개량한복등을 선보였는데 특히 각 사찰의 원로급 스님 및 불자들이 모델로 참가함으로써 장엄함과 친밀감을 더했다. 총지종에서는 삼밀사 주교 의강 정사와 관음사의 수행원 전수도 모델로 참여하여 세련되고 단정한 총지종 특유의 법의를 선보였으며 많은 찬사를 받았다. 또한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우리 옷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한 것도 큰 성과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진: 범자가 새겨진 수의 중의 일부. 제공: 법원신문 김태형 기자

### 진언 새겨진 조선 시대 수의 최초로 발견 옴마니반메흠등 범자(梵字) 새겨져

『옴마니반메흠』등 진언이 새겨진 조선시대 수의와 관이 지난날 6일 경기도 파주군 경주정씨 제안공파 선산에서 묘지 이장 중에 발견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발견된 유물은 육자진언, 보살상, 비천상, 범자 등이 새겨진 의류와 내벽을 다라니가 찍힌 종이로 불인 관 등 30여점.

이 유물들은 지금 단국대 민속박물관에서 보존 처리중이며 이 작업이 끝나면 대로 유물의 관람 및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박물관 측은 밝히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유물은 시신 부장물로는 최초로 진언 등이 새겨졌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밀교 신행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박주연 기자)

### 복지화 지수 절반 3주기

#### 추선불사 봉행

지난 10월 29일 본산 총지사에서 복지화 지수의 절반 3주기 추선불사가 있었다.

이날 행사는 제46회 추계 감공회 일정이 끝난 29일 오전 9시에 봉행하였으며, 승단의 스승과 신도 등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하였다.

효강 통리원장은 추선사에서 "열반하신 위업을 맞이하여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니 추모의 정이 금할 길 없다"고 말하고, 생전의 가르침과 유지를 받들어 증생교화에 전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고 복지화 지수는 청중 스승으로서 원외회 의원, 종의회 의원, 사감 원장, 재단 이사 등을 역임하였고 열반 당시에는 총본산 총지사의 주교를 맡으며 일생을 일선교화에 헌신하였다.

### btn 자원 봉사단 발대식

지난 10월 27일 불교 텔레비전(btn) 자원봉사단 발대식이 동사 15층에서 있었다. 이날 발대식에는 불교 텔레비전 대표이사 태용 스님, 조계종 문화사회부장 시현 스님, 태고종 교무국장 김도각 스님, 진각종 통리원 이덕해 홍보부장, 총지종 범장원 이화령 연구원겸 총지종보 편집장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과 자원봉사자 1백10여명이 참석해 자원봉사단의 결성을 축하하고 진정한 봉사자의 굳은 의지를 보여줬다. 강국서 단장의 임명과 10개 팀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의 팀장 소개에 이어 각 팀의 봉사자들은 다과를 함께 하며 앞으로 불교 텔레비전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자원봉사와 방송출연 및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을 다짐하였다. (김은숙 기자)

##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불교방송은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함으로써

자비, 평등, 해탈을 바탕으로한

인간 존엄성의 구현과 사회의 정토화를 추구합니다.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대중화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불교방송은

정법구현을 통한 불국정토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불교방송에 귀 기울이면

자비의 법음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일궈줄 것입니다.

■ 불교방송 전국방송망 확장에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바랍니다.

불교부산방송과 불교광주방송의 개국에 이어 대구와 청주에서도 불교방송이 곧 개국합니다. 불교대구방송과 불교청주방송이 전국 불자님들의 성원하에 여법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동참을 기원합니다.